

GIORGIO ARMANI

fragrances & beauty

Si Passione 캠페인 소개

새로운 프래그런스 Si Passione의 출시에 맞추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케이트 블란쳇, 애드와 아보아 및 사라 샘파이오가 나서는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Si 여성상을 기념합니다.

Si Passione은 강력한 감정인 열정을 탐구함으로써 Si 프래그런스 인성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프래그런스는 아르마니의 시그니처 프래그런스를 인상 깊이 재창조함과 동시에 열정에 대한 모던하고 대담한 관념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오늘날의 여성이 알려주는 새로운 관점을 드러냅니다. 빨간색은 Si Passione의 태도 및 본질의 상징입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후각의 본질이며, 그 정신입니다. 그것의 강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Si Passione 철학의 중심에 있는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각 여성마다 진정한 자신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순간의 행복을 즐기고, 강함과 허약함을 동시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Si는 단순한 프래그런스 그 이상입니다. Si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현대적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하며 독립성있는 정신의 저항할 수 없는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Si의 범위는 한편으로는 생생하고 한편으로는 활기 넘치는 결연한 현대적 여성성의 이러한 원칙으로 보호됩니다.

여성성의 감성과 다양한 형태의 팔레트가 톰 먼로의 포화된 색상의 사진을 통해 삶에 다가가는 Si Passione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이 씨클 내에서 인생을 사는 여성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Si Passione 마인드셋을 구체화합니다.

호주의 오스카 상 수상 여배우인 케이트 블란쳇은 2013년에 탄생한 Si 여성상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진정성과 진실성으로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는 맡은 역할을 완전하게 소화하는 타고난 능력을 장점으로 가진 여배우로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각 역할의 성격을 묘사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 연기합니다. 그녀는 Si Passione을 위한 캠페인에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블란쳇은 Si 처럼 모든 배역에서 열정을 불사릅니다. 그녀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으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향기가 납니다.

가나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현대 세계의 시민인, 애드와 아보아는 자신의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애드와는 대담무쌍하게 그녀만의 권한을 창출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합니다. 그녀의 자애로운 접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Gurls Talk”이라는 조직의 설립을 이끌었습니다. 이 조직은 젊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한 이양, 자기 보호 및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도와줍니다.

"Si Passione 캠페인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게 이 캠페인은 허약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여성으로 둘러싸인 세계뿐만 아니라 아르마니의 세련됨을 나타냅니다."

사라 샘파이오는 뉴욕시에서 살고 있는 포르투갈 태생의 모델입니다. 그녀는 가장 권위 있는 패션 잡지의 커버를 장식하며 오늘날 패션쇼 무대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미소짓게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그녀의 삶의 환희는 내부로부터 분출되어 나옵니다. 활발한 에너지와 즐겁고 자유로운 정신이 그녀로부터 발산됩니다. 사라는 열린 자세로 삶을 포용합니다. 2016년 6월, 그녀는 집 없는 동물들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동물보호단체 (ASPCA)와 협력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항상 저와 관련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성스럽고 강력하지만 항상 우아한, 아르마니의 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해 명확하게 압니다. 굉장한 의욕이 솟게 만들어줍니다.”

사진작가
툼 먼로

비디오 촬영가
툼 먼로
(케이트 블란쳇)

과비앙 콩스탕트
(에드와 아보아 및 사라 샘파이오)